



## LPG충전소의 외국인 취업허용 건의

### ● 한국LP가스공업협회 ●

최근 우리회는 2002. 7. 17자로 정부에서 발표한「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」과 관련, LPG충전업계의 경우 정부에서 외국인취업을 허용한 중소기업·서비스업 등보다 국내 인력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충전업계에서도 외국인을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산업자원부에 건의했다.

□ LPG충전소 현황 (2002. 6말 현재)

지역	용기 (A)	겸업 (B)	자동차 (C)	합계	
				용기(A+B)	자동차(B+C)
서울	4	2	60	6	62
인천	3	5	29	8	34
경기	6	25	126	31	151
부산	2	13	22	15	35
울산		5	18	5	23
경남	4	24	64	28	88
대구	2	7	23	9	30
경북	4	13	81	17	94
대전	1	4	21	5	25
충남	4	7	70	11	77
충북	1	14	38	15	52
광주	2	6	19	8	25
전남	4	13	65	17	78
전북	2	8	63	10	71
강원		18	45	18	63
제주	2		16	2	16
계	41	164	760	205	924

□ LPG충전업계 인력현황

○ 자동차충전소

- 대도시의 경우 보통 1일 3교대로 1개 충전소당 평균 충전원은 최소 10여명, 기타 도시는 3~7명 정도 필요한 실정임

○ 용기충전소

- 턴테이블(용기충전시설) 1기당 필요한 충전원은 4~5명임

○ 실태

- 인력구하기가 힘들어 충전소마다 1~3명씩 아르바이트생으로 대체하고 있음

□ 인력확보가 어려운 이유

○ 근무여건 열악

- 충전소의 경우 추운 겨울철에도 개방된 곳에서 근무해야 하는 등 어렵고 힘든 3D 업

종으로 인식, 취업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임

○ 잦은 이직

- 근무환경이 좋지않다보니 자연히 직원들의 이직이 잦아지게 되고, 다시 충전원을 모집한다고 해도 가스를 능숙하게 다루기 까지 몇 개월의 기간을 또 소요해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
- 또한 직원을 구하기 힘든 경우에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고 있으며, 미숙련자가 가스를 취급함에 따라 안전관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

○ 위험성

- LPG는 폭발가능성이 있는 연료이므로 충전소근무를 위험하다고 인식하고 있음

□ LPG충전소에 외국인 취업이 필요한 이유

○ 안전관리 향상

- 외국인 취업 허용기간이 1년이고, 1년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충전소에 외국인이 취업할 경우 2년동안 LPG를 다루게 됨으로 인해 숙련된 상태에서 LPG를 공급할 수 있을 것임
- 충전소는 서비스업 등보다 인력구하기가 더 어려운 실정임
- 이번에 정부에서「외국인력제도 개선대책」을 마련한 것은 외국인의 불법체류를 막고 중소기업·서비스업 등의 인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인바,
- 실제 LPG충전업계는 3D업종으로 인식되어 이들 업종보다 국내 인력을 채용하기가 더 어려운 상황이므로 충전업계의 실정을 파악하여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.